



군종주보

2017년 6월 25일(제829호) 민족의 화해와 일지■ 위헌 기도의 날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옛날에 초등학교 때에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노래를 학교에서 듣거나, 불러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시대에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이 많은 아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형제·자매는 참혹한 전쟁을 계속 겪었고, 이는 형제애에 심각하고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수한 갈등이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기가 초래한 공포와 파괴로 얼룩진 땅에 사는 모든 이에게 저는 저 자신과 온 교회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평화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잊어버린 전쟁들에서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상처받은 이들과 굶주린 이들, 난민들과 강제 이주민들, 그리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한국 그리고 우리와 한겨레이며, 형제인 북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전쟁은 형제애에 심각하고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한 민족,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져 살았고, 그 세월이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다 주고, 남과 북 두 나라 안에서 상처받은 이들과 굶주린 이들,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통일에, 평화에 무관할지라도 우리가 모여 청하면 분명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나라,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민(田. 이퀴나스) 신부
예성대(공군 제16진비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변호송
복 음
영 성 제 송

신명 30,1-5
◎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에페 4,29-5,2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마태 18,19ㄴ-22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이니, 무엇보다 사랑을 입어라.

진리를 살다

초세기에 일어났던 신앙의 큰 분쟁 중에 신앙을 올바르게 설명해 주고자 노력한 니체아 공의회(325년)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년)의 교부들은 신앙고백 안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참된 고백을 삽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령의 참 신성에 대한 신앙은 발전되고 심화된 언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나이다.”

이와 같이 신앙고백은 단번에 불변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진적으로 깊이 성장하고 살아온 신앙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시대를 거쳐 오면서 교회는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고 신앙의 관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신앙은 생활하고 성장하면서 결실을 맺어 갑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은 언제나 미래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합송이나 노래로 하는 신앙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다양한 생활 과정 중에 얻는 확증보다는 오히려 희망과 염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마르 9,24) “주님, 과연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에서 성찬의 전례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역시 여러 가지 사실이 함께 표현됩니다. 신앙고백은 공동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며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응답입니다. 이 신앙고백은 천 수백 년을 거쳐 오면서 동서방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은 이들과

신앙고백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생생한 세례 갱신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고백은 결국 의심하면서도 찾고 있는 자에게 기쁜 희망의 표현입니다. 인간 이성이 오직 세계 내적 실재와 규범만을 인정하는 시대,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와 가르침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신앙고백은 신앙의 내용과 신앙인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게 합니다. 신앙인 각자는 신앙고백을 할 때 자신이 지난날과 오늘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앙의 증거자들과 순교자들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의식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증거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미사전례 안에서 신앙고백은 동시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앙고백은 찬미와 찬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찬미가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니체아 -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단순히 길다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미사의 공식 신앙고백문은 니체아 -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신앙고백을 할 때 규정된 몸가짐은 서는 자세입니다.(미사경본 총 지침 43항) 신앙고백을 기도하거나 노래로 할 때, 특별히 일러두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강생과 탄생에 대해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모두 허리를 굽혀야 하며 성탄 대축일과 예수 탄생 예고 대축일에는 더 나아가 무릎을 꿇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느님의 하강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시작을 경외스런 눈길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최정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탁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별

파스르르 떨림과
어설폰 벉깔로
이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있는
우리는 작은 별입니다.

누가 아니라
님만은 알아보고
찾아와
곶다. 아름답다
말해주는
고운 별들입니다.

상화이야기

성모지와 두 천사



프리 필리포 리피(1406-1469)
1460-1465년 작
패널 위 템페라 회 63 X 95 cm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피렌체

김은혜(갤러리마켓)

이 당시 피렌체에서 볼 수 있던 실제 여인과 아이들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보티첼로의 스승답게, 아름다운 선과 우아한 분위기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러나 일견 진지해 보이는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 반전이 있기도 하다.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다가올 수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성모님의 머리에는 투명한 소재의 옷감으로 보이는 두건 같은 것이 쓰여 있고, 구불거리며 흘러내리는 옷감이 성모님의 목선을 타고 어깨에까지 떨어진다.

오른쪽에는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대고 계시며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받치고 있는 두 천사의 모습이 흥미롭다. 가장 앞쪽에 있는 천사는, 마치 피렌체 길거리에서 방금 화가의 화실로 불러 들어온 듯,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의 미소를 띠고 있으며, 뒤편의 천사(아이)의 모습은 빼꼼한 눈의 절반 정도만 그려져, 그림 전체에 생동감을 더한다.

제단화였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당시 피렌체 인들은 더 이상 중세의 딱딱한 인물들이 아닌, 자신들처럼 고통과 슬픔을 아는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익살스러운 천사들의 모습에서 큰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심술 위한 미사 - 민족의 회개와 일치■ 위한 기도의 날: 해병중앙 조태구 신부

◆ 교구장 동정

- 선봉대(육군 제3군사)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25일(주일)

◆ 육군 인계·인수

때: 6월 27일(화) 10:30
곳: 군중교구청

◆ 2017년 군중장교 임관식

때: 6월 30일(금) 11:00
곳: 육군 종합행정학교

“군(軍) 복음회,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